

성스러운 불교 회화의 특별한 여행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아주 특별한 그림들의 여행

김소연 지음

패블은 사찰 마당에서 진행되는 야외 불교 의식 때 걸여두는 그림을 말한다. 이 불화는 대략 높이가 8~14미터에 이른다. 이전 시기, 다시 말해 고려와 조선전기에는 실내에 안치됐지만 임란과 병자호란 등을 거치면서 불교 미술로 달라졌다. 전란 기간 의승군의 활약 등과 맞물리면서 불교는 민간에게도 친숙한 종교로 다가왔다.

무게와 크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패블을 상시로 야외에 펼쳐둘 수 없었다. 사찰에서는 의식을 치를 때만 실외에 펼쳤다. 현재 남아 있는 패블은 120여 점이며 대다수는 17세기에 제작됐다.

“많은 사람이 모여 떠들썩하고 부산스러운 풍경을 ‘야단법석’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 야단법석(野壇法席)은 야외에서 제단을 차리고 법회를 여는 것을 말하며 두 번째 야단법석(野壇法席)은 법문을 듣는 자리에서 묻고 답하는 것을 이른다. 근대 박물관이 건립되기 전에는 패블을 일반인들은 패



블을 볼 기회가 없었다. 단순한 감상품이 아닌 법패를 비롯한 승무 등과 결합한 의례였다.

그러나 패블도 일주문을 넘어 외부로 이동한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부석사 패블’이다. 부석사 패블은 두 점이 있다. 1684년 작품은 부석사가 이 그림을 ‘간룡 10년 을축년(1745) 4월

에 증수하여 충청도 청풍 월악산의 신록사에 옮겨 안치했다’고 돼 있다.

당초 있던 부석사의 1684년 작 패블이 낡은 관계로 그림을 하나 더 제작해 봉안했다는 것이다. 신록사는 청풍에 있었는데 충북 제천의 옛지명이다.

김소연 국민대 교양대학 조교수의 ‘아주 특별한 그림들의 여행’이라는 책에는 성스러운 그림들의 특별한 여행을 담고 있다. 근대 이전 동아시아 문화권 주류를 이루었던 불교 회화 대상으로 한다.

저자는 불교 회화가 어떤 이유로 여행을 떠났고 여행을 가능하게 했던 이는 누구이며 불교 회화의 미학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망한다. 학부에서 고고미술학을 전공한 저자는 고려 ‘처성광여래도’와 성수 신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동아시아 해상 신앙과 시각물을 연구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수많은 불교 회화가 일본으로 흘러갔다. 10~14세기 말에 이르는 동아시아 바다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던 시기였다. 송과 고려, 일본 사이의 주요 무역 항로였던 동중국해는 명선들로 붐볐다. 조선에서 그려진 ‘석가탄생도’는 훗날 석가모니 부처

가 되는 신타라타 태자의 출생 이야기를 담고 있다. 조선 왕실에서 15~16세기쯤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그림은 일본 후쿠오카의 사원인 혼가쿠지에 있다. 조선 왕실에서 제작된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서 일본으로 가게 됐을까.

일본은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여러 정치 세력이 대립과 전쟁을 반복했다. 히데요시는 1587년 후쿠오카의 국제교역항 하카타를 공략해 수중에 넣었다. 히데요시는 도시 계획 일환으로 관개시설과 도로를 정비했으며 하카타 상인들과 우호 관계를 맺었다. 당시 다카도 도진이라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지역의 리더로 도시 정비 사업에 적극 동참했다.

‘석가탄생도’가 도진의 손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경위가 알려진 바는 없다. “세로로 접힌 흔적이 있는 등 훼손된 상태여서 상업적 거래나 선물이나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건너갔으리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또한 임진왜란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항구 지역 상인이라는 점에서 군함을 타고 건너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책에는 일본으로 건너간 중국 송·원대의 영파 불화와 조선 불화, 에도 시대의 떠돌이 이야기꾼의 불화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다만 종교화는 비종교화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이동했다고 본다.

저자는 “그림들의 특별한 여행을 따라나서는 것은 성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속의 세계에 발을 들인 동아시아 종교 회화의 새로운 미학과 그 역동성,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서해문집·1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부석사 패블’은 두 점이 있는데 1745년 작품은 1684년 작품을 증수한 것이다.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684년 작.

천국에서 온 탐정

이동원 지음

신요한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견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신학대를 자퇴하고 현재 행사를 하고 있다. 유진신은 ‘사랑만이 죄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는 법의관에서 목사로 삶의 행로를 바꿨다. 목사이면서 카페 사장이기도 한 유진신은 자신의 카페 ‘천국에서 온 커피’의 단골이었던 성요한에게 한 사건의 재수사를 의뢰하며 두 사람은 의기 투합한다.



제10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했던 이동원 작가가 신작을 들고 독자들 곁으로 왔다. 장편 ‘천국에서 온 탐정’은 제5회 미스터리(추리 미스터리 스티틀리) 소설 공모전에서 단편 웹소설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카카오페이지 × CJ ENM이 강력 추천한 작품으로 범죄를 모티브로 한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이색적이다.

소설은 한 노숙자 의문의 자살 사건에서 시작한다. 교회 간증을 앞두고 자살한 노인 사건에 이어서 실종된 스물아홉 청년 사건, 늦은 밤 방화사건, 데이트 폭력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추적한다. 작가는 최근 늘 인간의 선과 악에 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춘 작품을 발표했다. 세계문학상 수상작 ‘살고 싶다’에서는 군 병원 내에서 벌어지는 연쇄 자살 사건을, ‘당신들의 신’에서는 언론과 정치 권력 이야기로,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는 법과 제도 그리고 종교를 매개로 선악의 문제를 파고든다.

성유한과 유진신은 각자의 신념과 방식대로 사회의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과연 범죄자는 타고나는 것일까. 사회의 잘못된 문화와 제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처벌만이 범죄 예방의 능사일까. 이들 두 인물이 찾는 답은 과연 존재하거나 할까. 소설을 소설로만 읽을 수 없는 이유가 작품에 드러내져 있다.

〈스윙테일·1만5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늘은 와인이 필요해

송정하 지음

일반적으로 와인은 특별한 날 분위기를 내기 위해 마시는 술로 인식되고 있다. 와인을 마실 때 음식과 함께 음미가 곁들면 분위기가 업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술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어쩌면 그것이 와인의 매력인지 모른다. 와인만큼 다양한 세계가 없을 만큼 종류와 먹는 법 등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잘 몰라도 특별한 취향이 없어도 혼자서 마실 수 있는 와인을 조명한 책 ‘오늘은 와인이 필요해’가 나왔다. ‘소믈리에 타임즈’에 ‘송정하의 와인 스케치북’을 쓰고 있는 송정하가 저자다.

현재 저자는 강남와인스쿨에서 와인 관련 강의를 하고 있으며 사람이 주인공인 따뜻한 와인 관련 이야기를 쓰고 싶은 꿈이 있다.

저자 역시 와인을 공부할 무렵에는 어떤 와인을 마셔야 하는지 잘 몰랐다. 그런 시간도 잠시, 와인에 대한 인간이 함께 해온 역사와 예술을 접하며 겸손함을 깨달았다. 시간과 노고가 빚어내는 가치와 지혜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법을 배웠다. 또한 그저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즐겁게 마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저자가 소개하는 와인 가운데 로제제가 있다. 화이트와 레드가 섞인 색깔 때문에 정통 와인이 아닌 듯한 느낌을 준다. 물론 화이트 중간이 아니다. 저자는 다양한 농도와 색이 주는 맛과 깊이가 화이트 와인과 같은 은은한 맛을 느끼게 해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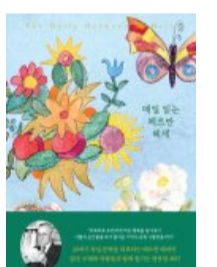
저자는 추운 겨울에는 와인에 향신료를 넣고 끓여서 마시는 뽕쇼도 이야기한다. 와인 애호가들이 질색을 할 수도 있지만 유럽에서는 한겨울이면 약처럼 늘 마시기도 한다는 것이다.

〈현암사·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매일 읽는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 지음, 유명미 옮김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의 방식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데미안’부터 ‘수레바퀴 아래서’, ‘유리알 유희’, ‘신타라타’, ‘황야의 이리’에 이르기까지 헤르만 헤세의 작품은 언제나 필독서로 손꼽혀 왔다.

니케북스의 A Year of Quotes 시리즈 중 하나인 ‘매일 읽는 헤르만 헤세’는 헤세의 이야기속 명문장을 한 권으로 엮어낸 책이다. 책 뿐만 아니라. 남동생, 스위스 화가, 독일의 시인 등 지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들도 담겨 있다.

헤세는 독일에서 태어나 문학가이자 화가인 아버지 밑에서 엄격한 종교적 교육로 자랐다. 부모는 신학을 공부하길 바랬지만 헤세는 시와 예술에 열광을 품었다. 어린 헤세에게 수도원 학교 학업은 가혹했고 이때문에 마음을 크게 다친 채 성장기를 보내야 했다. 이후 두 차례의 세계대전, 부모와 형제의 죽음, 세번의 결혼 등을 경험했고 1946년 괴테상과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2023년은 헤세 사망 61주기, 탄생 146주기를 맞이하는 해다. 긴 시간이 흘러도 오래도록 전해오는 문장들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공통점이 있다.

책은 헤세의 예술적 감성이 담긴 수채화도 함께 담겨 있다. 지친 동생을 위로하는 다정한 말과 토마스 만과 죽음에 대해 담담하게 얘기해 나가는 문장들, 나이 들과 죽음에 관한 메모와 시, 천진난만했던 유년시절을 돌아보는 문장들까지. 자신 안에 담긴 좌절과 슬픔에 괴로워하다가도 인간에 대한 희망과 애정을 놓지 않았던 헤세의 목소리를 읽어볼 수 있다.

〈니케북스·2만5000원〉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모집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 집 인 원
인문사회	신 학 과	23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0
사범	유아교육과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6
총 계		4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2. 12. 29(목) ~ 2023. 1. 2(월)
· 전 형 일: 2023. 1. 9(월)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신학과(Th.M.)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금)
· 전 형 일: 2023. 2. 6(월)

사랑과 감사의 68년

1954 ~ 2022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